

일본자민당 파벌의 정책성향과 대한정책의 우경화 배경¹⁾

고선규 _ 선거연수원

목 차

- I. 서론
- II. 1994년 정치개혁이후 파벌정치의 변화
- III. 자민당 파벌의 현황과 정책노선
- IV. 자민당 주류파벌의 보수화와 대외정책의 변화

국문초록

자민당은 파벌의 연합체 형태로 구성되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 파벌의 정책성향, 이념정향에 대한 연구는 일본의 대한정책을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자민당 파벌의 기능변화, 파벌을 구성하는 인물들의 현황, 정책성향, 이념적 정향을 파악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자민당정치의 보수화, 대한정책의 우경화 배경을 주류파벌의 변화와 정책적 성향에서 찾고자 한다.

2000년 이후 모리 수상으로부터 시작되는 세이와정책연구회(細田派)의 집권은 미일의존관계의 심화와 중일관계, 한일관계의 악화시기와 일치된다. 1972년 다나카(田中) 수상 시기 중일관계정상화 이후,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관계는 1980년대를 거쳐 1990년대 말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대중관계는 친중국성향을 가진 다나카

1) 이 연구는 2013년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용역으로 수행된 「일본의 대한국정책에 참여하는 파워엘리트에 관한 연구: 일본 자민당 정권의 독도, 역사, 대북한 정책 성향의 자료수집과 분석」이라는 공동연구의 일부분을 대폭 수정, 보완한 논문이다.

파벌의 지배와 무관하지 않다. 한일관계도 김대중정부 시기까지 정상회담을 통한 현안문제 해결과 교과서문제, 야스쿠니참배문제, 어업협정문제, 정치가들의 망언문제와 같은 양국의 갈등을 관리하면서 유지하여왔다.

그러나 2001년 고이즈미정권 이후에는 서틀외교중지, 역사인식문제, 영토문제,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극단적인 형태로 한일관계는 물론 중일관계가 악화되었다. 이러한 갈등의 악화는 1970년대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주류파벌로 군림해온 다나카 파벌이 추진한 외교, 안보정책에 대한 세이와정책연구회의 궤도 수정이라고 본다.

주제어

자민당정치, 파벌의 대외정책, 우경화, 세이와정책연구회, 한일관계

I . 서론

2015년 9월 8일, 일본 자민당의 총재선거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현 수상이 재선에 성공하였다. 자민당 내 7개 파벌 모두가 순차적으로 지지를 선언하였고 후보자를 출마시키지 않게 되면서 무투표로 당선되었다. 무투표 당선은 2001년 고이즈미(小泉純一郎) 수상 이후, 14년만에 처음이다. 임기 2년을 무사히 마치고도 다시 무투표로 재선에 성공한 선거는 1997년 하시모토(橋本龍太郎) 총재 당선 이래이다. 이번 자민당총재선거에서 이시바(石破茂), 노다(野田誠子)와 같은 유력정치인들이 출마하지 못한 이유는 역시 파벌정치의 논리에 있다. 각 파벌보스들이 파벌소속 유력 의원에게 출마 자제를 요청하였고 총재선거 이후 예정된 개각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이렇듯 파벌은 일본형 정치를 특징지

우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자민당 파별은 일본정당의 형성과정에서 지역중심의 정치가 네트워크 그리고 중의원선거에서 오래 동안 채택해 온 중선거제도와 관련성이 깊다. 즉, 자민당 파별은 전진 의회정치과정에서 만들어진 개인적 인맥중심의 정치문화를 토대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전후 1955년에 이루어진 자유당과 민주당의 통합과정에서 형성된 사상적, 정책적, 당파적, 인적네트워크집단에서 출발하였다.

자민당은 파별연합체 형태로 구성되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파별은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郎) 수상의 후임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8개 의원집단이 그 원형이다.²⁾ 이후 총재선거를 둘러싸고 파별간 이합집산이 반복되면서 소규모 파별은 도태되었다. 1970년 후반, 중선거구제의 영향으로 자민당은 이케다 파별(池田派), 사토 파별(佐藤派), 기시 파별(岸派), 고노 파별(河野派), 미키 파별(三木派) 등 5개 파별 연합체 형태로 귀착되었다. 현재는 파별이라는 용어보다는 ‘정책집단’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므로 각 파별의 공식명칭도 세이와정책연구회(清和政策研究会: 細田派), 헤이세이연구회(平成研究会: 額賀派), 고치카이(宏池会: 岸田派), 이코카이(為公会: 麻生派), 시스이카이(志師会: 二階派), 근미래정치연구회(近未来政治研究会: 石原派), 반초정책연구소(番町政策研究所: 大島派) 등으로 표기되고 있다.

일본의 정책결정과정에서 고이즈미(小泉純一郎) 내각 이후 정치가주도의 결정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서 각 내각에서 정책결정을 주도하는 정치가그룹의 정책성향에 따라 정책결정의 변동 폭은 크게 확대되었다. 일본 정부의 대한정책 역시 정치가주도의 결정방식이 강화되

2) 1956년 당시 8개 파별은 宏池会(池田派), 木曜研究会(佐藤派), 水曜会(石井·緒方派), 自政会(小野派), 十日会(岸派), 春秋会(河野派), 火曜会(石橋派), 政策懇談会(三木派) 등이다.

고 있으며, 국회의원들의 정책연구 활동과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

2012년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재집권하게 되면서 파벌의 정치논리가 다시 작동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아베 수상이 자민당의 총재로 당선 되는 과정에서 파벌 간 합종연횡이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게 되면서 파벌이 자민당 당내정치에 재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2012년 12월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3년 만에 다시 정권여당으로 복귀하면서 자민당식 정책결정이 작동하는 공간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정책결정 뿐만 아니라 자민당 당3역인 간사장, 정조회장, 총무회장 인사에서도 파벌의 논리가 재작동하기 시작하였다. 2014년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파벌의 움직임은 더 활발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자민당의 내각구성이나 정권운영이 전적으로 파벌의 논리에 의거하던 '1955년 체제'와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1994년 이후, 정치개혁과 행정개혁으로 내각이나 수상관저 주도의 정책결정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수상관저의 기능강화는 관방장관, 관방부장관, 특명담당장관, 수상보좌관 등과 같은 수상의 측근이나 정책보좌기구의 기능을 대폭적으로 강화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일본정치에서 정책결정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현 집권당인 자민당내 정책그룹의 역할도 강화되었다. 더구나 수상 권한이 강화되면서 수상 개인이나 총재파벌의 영향력도 커지게 되었다. 2001년 고이즈미 수상 이후, 수상의 정책적, 이념적 성향은 물론 내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총재파벌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 정책성향, 이념정향은 한일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기존연구에서 일본정치의 보수화는 주로 경제침체에 따른 사회적 불안, 민족주의 대두, 양극화, 네트워크 우익세력의 등장, 혐한 등과 변화로 설명해 왔다. 이 논문에서는 자민당의 파벌에 주목한다. 특히, 대외정책이나 대한정책을 결정하는 의회정치, 자민당정치, 정책결정과정 에 주목해 본다면, 주류파벌의 변화와 그에 따른 정책적 성향이 명확하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 파벌의 정책성향, 이념정향에 대한 연구는 일본의 대한 정책을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자민당 파벌의 기능변화, 파벌을 구성하는 인물들의 현황, 정책성향, 이념적 정향을 파악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자민당정치의 보수화, 대한정책의 우경화 배경을 주류파벌의 변화와 정책적 성향에서 찾고자 한다.

Ⅱ . 1994년 정치개혁 이후 파벌정치의 변화

일본정치에서 파벌은 근대적 의회정치의 출발과 그 역사를 같이 한다. 일본에서 파벌은 1890년 제국의회개설 당시, 제1당인 자유당이 이타가키(板垣退助) 중심의 토사파(土佐派), 고노(河野広中) 중심의 토호쿠파(東北派), 오이(大井憲太郎) 중심의 칸토파(關東派), 그리고 마쓰다(松田正久) 중심의 큐슈파(九州派) 등 네 개 파벌로 나누어져 주도권 경쟁을 하게 되면서 시작되었다.³⁾ 자민당 파벌의 원형이 근대초기 의회정치와 더불어 만들어졌다고 해도 전전시기에는 자민당 총재 선출이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이 표출되는 계기는 많지 않았다.

파벌이 정치적인 결속력을 가진 의원집단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는 계기는 1955년 자민당이 만들어지고 총재선출이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서부터이다.⁴⁾ 1956년 12월에 실시된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8개 파벌이 등장하여 '8개사단'으로 불리게 되었다. 1980년대에는 5개 파벌로 축소되었다.⁵⁾ 이 당시 파벌은 파벌 사무소를 가지고 독립적인 회계로 운영되었다.

3) 石川真澄·広瀬道貞, 『自民党』, 東京: 岩波書店, 1989.

4) 北岡伸一, 『自民党一政権党の38年』, 読売新聞社, 1995.

총무, 선거대책, 정책, 섭외분야 등을 담당하는 간부를 두고 있었다. 자민당의 당 간부, 각료의 배분은 파벌 크기에 비례하여 이루어졌다. 파벌 소속의원들에게는 8월(お盆), 12월(떡값) 그리고 선거기간(선거비용)에 파벌로부터 지원금이 지급되었다.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유력정치가들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파벌의 기능도 확대되었다.

자민당 1당 지배체제에서 자민당총재는 자동적으로 내각총리대신(수상)이 되었다. 그러므로 유력정치가들은 총재선거에 대비하여 자신을 지지해 줄 국회의원 확보가 필요하였다. 일상적으로 자신을 지지해 줄 의원들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파벌을 만들게 하였고, 누가 더 많은 의원을 확보하는가를 둘러싸고 경쟁하게 되었다. 1979년 실시된 총재선거에서는 49일 동안 파벌 간 대립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49일 동안 대립에도 불구하고 자민당 내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해 결국 중의원에서 오히라(大平正芳)와 후쿠다(福田赳夫) 간 수상지명 선거가 치러졌다. 총재선거를 둘러싸고 '2위·3위연합', '당직자파벌연합' 등 다양한 형태의 파벌 간 합종연횡, 이합집산이 이루어졌다. 총재선거 결과, 승리한 파벌연합은 '주류파벌'이 되었고 나머지는 '반주류파벌', '비주류파벌'로 밀려났다. 자민당은 파벌 간 대립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1978년부터 총재선거를 당원에게도 확대하였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파벌 약화는 물론 금권체질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파벌의 '전국화'를 초래하고 말았다.⁵⁾

그리고 파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선거운동에 필요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파벌의 지원을 통해 당선되고 난 이후에는 파벌이 특화시킨 정책분야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파벌 내에서는 당선 회수에 따

5) 石井·緒方派, 小野派, 石橋派 3개 파벌은 소멸되었다. 일본이 채택한 중선거구제는 3-5인을 선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각 파벌에서 1명씩 당선되는 선거구가 다수 존재하게 되면서 5개 파벌이 존재하게 되었다.

6) 井芹浩文, 『派閥再編成』, 東京: 中央公論社, 1988.

라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각료직 배분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결정되었다. 파벌이 자민당 정치에서 수행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역시 총재선거와 관련된 파벌 보스의 득표기반이다. 파벌보스가 당 총재가 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지기반으로서 의원과 대의원 확보가 필요했다.

이러한 자민당 파벌이 변화하는 계기는 1993년 총선거에서 야당으로 전락하게 되면서이다. 이어서 1994년 비자민연립정권이 등장한 이후, 중의원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도에서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로 변화하게 되었다. 중선거구제도하에서 자민당은 한 선거구에 복수의 자민당 후보자를 공천하였다. 자민당 후보자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정당이 아니라 파벌차원에서 개별 후보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소선거구제도의 도입은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이 당선된다. 그러므로 자민당 후보자간 경쟁이 사라지게 되었다. 파벌이 개입할 여지가 줄어들었다. 소선거구에서는 후보자의 결정은 정당이나 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소선거구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자민당 총재선거는 여전히 당원과 국회의원에 의해서 선출되었다. 그렇지만 자민당 총재선거의 민주화에 따라 당원 참여가 확대되었다. 결국 의원집단으로서 파벌의 영향력은 감소하게 되었다.⁷⁾

소선거구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이루어진 정치자금제도 개혁도 자민당의 파벌약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정치가 개인에게 이루어지던 기업이나 단체의 정치헌금이 금지되었다. 이러한 개혁 조치로 파벌의 보스들이 정치자금을 모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결국 이전과 같이 파벌소속의원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자금의 확보가 봉쇄되었다.

1994년의 선거제도 개편과 더불어 1996년부터 실시된 행정개혁, 그리

7) Tsutsumi Hidenori, *How and Why did Japan's LDP Adopt "Open" Candidate selection Process?: The case of 2010, 2013 Upper House Election*, Workshop on Candidate selection Methods in East Asia, Gakushuin University, 2013.

고 2001년 이루어진 중앙성청 개편에 따른 내각부의 설치에 당시 자민당 총재인 수상의 권력 강화를 가져왔다. 수상의 권력 강화는 자민당총재 선출방법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자민당총재 선출방법의 변화는 파벌기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게 되었다. 자민당의원들의 다수파 형성을 위한 파벌연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80만 명에 이르는 당원, 당우들의 참여 속에서 총재선거가 실시되었다. 자민당 총재선거에 이렇게 많은 당원, 당우들이 참가하게 되면서 당대표 선거의 민주화도 초래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파벌의 기능을 약화시키게 되었다.⁸⁾

1994년에 이루어진 선거제도 개편은 중의원선거에서 정당정책의 중요성은 물론 선거전략에서 당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게 되었다. 이전 중선거구제도에서는 유권자의 투표선택 기준이 정당의 정책이 아니라 자민당 후보자 개인이었다. 그러나 소선거구제도로 변화하면서 유권자의 투표선택에서 정당정책이나 당수의 이미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⁹⁾ 특히, 당수의 이미지나 인물평가가 정당이나 후보자의 득표에 중요해지게 되면서 정당차원에서 정당 비례대표선거 또는 각 선거구의 후보자 득표에 도움이 되는 정치가를 당수로 선출하게 되었다.

소선거구제도는 일본의 정당체계를 양당제로 변화시키게 되었다. 일본의 정당체계는 자민당을 한 축으로 하고 야당진영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통합이 이루어졌다. 결국 2009년에는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민주당정권에 대한 실망과 함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2012년 12월 총선에서 자민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2009년 총선거와 2012년 총선거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선거 전략이나 유권자 동원에서 차지하는 당수의 역할은 높아지게 되었다. 2009년 총선거에서

8) 上神貴佳, 「党首選出過程の民主化—自民党と民主党の比較検討」, 『年報政治学』, 東京: 木鐸社, 2008.

9) 池田謙一, 「2001年参议院選挙と‘小泉効果’」, 『選挙研究』, 東京: 木鐸社, 2004.

민주당의 하토야마(鳩山由起夫) 당대표, 2012년 자민당 아베(安倍晋三) 총재의 대중적인 이미지나 인기는 선거승리에 크게 기여하였다. 의원 개개인의 입장에서도 당수의 인기는 선거구에서 후보자 개인의 득표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결국 소선거구제도의 도입은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당수를 요구하게 되었다.¹⁰⁾

인기 있는 당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는 요구는 자민당 뿐 만 아니라 야당 민주당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1996년 민주당 창당 이래, 야당진영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결집되면서 200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 비례대표 선거에서 민주당의 우위가 실현되었다. 2006년 아베정권 이후 거의 매년마다 자민당정권의 수상이 교체되면서 이에 실망한 국민들은 민주당지지로 옮겨가게 되었다. 결국 민주당이 2009년 총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 중의 하나는 하토야마 대표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인기이다. 민주당과 자민당의 양당제 속에서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양당의 대표는 내각의 수상이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소선거구제도 도입이라는 선거제도개혁에서 유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¹¹⁾ 즉 선거제도 개혁이 인기 있는 당수를 요구하게 되었다. 총선거에서 비례대표선거에서 득표는 물론 소선거구의 후보자 입장에서든 인기 있는 당수는 자신의 득표에 도움이 되었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자민당의 총재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 자민당 총재선거는 당원의 투표참여가 일반화되었다.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당원의 참여가 확대된 배경에는 국민 대중에게 인기 있는 당총재를 선출하기 위하여 유권자 수를 대규모로 확대한 결과이다. 이러한 자민당 총재선거의 민주화는 총재의 정치적 영향력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¹²⁾

10) 飯尾 潤, 『日本の統治構造—官僚内閣制から議員内閣制へ』, 東京: 中公新書, 2007.

11) 진창수·신정화, 『일본민주당정권의 탄생과 붕괴』, 서울: 오름, 2014.

12) Tsutsumi Hidenori(2013).

또 하나 자민당 파벌의 정치적 역할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주요파벌에서 선출되는 당총재 후보자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경력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 2001년 고이즈미 총재 이후 도시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총재후보가 증가하였다. 당선횟수를 살펴보다라도 당선횟수가 적은 젊은 의원들의 출마가 확연하게 증가하였다. 젊은 의원들의 총재선거 출마는 당직경험이나 각료경력에서도 이전시기와는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¹³⁾ '55년체제'에서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파벌보스, 각료경험, 당직경험과 같은 풍부한 정치적 경험이나 경력은 필수조건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자민당 총재의 출신지역을 살펴보면, 자민당의 지지기반이 농촌지역이므로 농촌선거구 출신이 많았다. 당선횟수를 늘려 자민당에서 당직이나 각료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견고한 지지기반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농촌지역 출신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였다.¹⁴⁾ 농촌지역에서 후원회를 조직하고 이를 유지, 관리한다면, 어떤 상황에서 선거가 실시되어도 당선이 보장되는 경우가 많았다. 반대로 도시지역은 야당성향이 강하고 유권자의 유동성이 높아서 안정적인 당선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러나 1994년 소선거구제도 도입 이후, 당총재의 자질로서 대중적 인기를 요구하게 되었다. 현재 일본정치에서 고령의원, 많은 당선횟수, 파벌의 보스는 구태정치의 아이콘이 되었다. 도시지역은 농촌지역보다 인구수가 많아서 지명도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시대적 변화에 민감한 도시지역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는 것은 대중적 지지를 얻는데도 유리한 기반이 될 수 있다. 더구나 도시지역의 정치가는 매스미디어 노출을 통해 자신의 지명도를 높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에 놓여있다. 최근 IT기술의 발전은 SNS를 활용한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과 소통을 도와준다. 도시지

13) 上神貴佳,(2008).

14) 北岡伸一(1995).

역의 유권자와 SNS를 매개로 한 일상적인 소통은 대중적 인기의 기반이 되고 있다.

이렇듯, 자민당 총재선거의 변화는 기존의 파벌보스와 같은 기성정치인보다는 젊고 인기 있는 정치가로 하여금 선거의 얼굴역할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 실제로 1997년 이후,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파벌의 보스가 아닌 정치가가 출마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1997년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하시모토(橋本龍太郎), 1998년 총재선거에서 가지야마(梶山静六), 2001년 총재선거에서 고이즈미(小泉純一郎), 아소(麻生太郎), 2003년 총재선거에서 고이즈미(小泉純一郎), 후지이(藤井孝男), 2006년 총재선거에서 아베(安倍晋三), 2007년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후쿠다(福田康夫), 2008년 총재선거에서 요사노(与謝野馨), 고이케(小池百合子), 이시하라(石原伸晃), 이시바(石破茂), 2009년 총재선거에서는 고노(河野太郎), 니시무라(西村康聡), 그리고 2012년 자민당 총재선거에서는 아베(安倍), 이시하라(石原伸晃), 이시바(石破茂), 하야시(林 芳正)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1990년대와는 달리 2001년 고이즈미정권 등장 이후, 한일관계가 악화 와 호전을 반복하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본다. 그러나 자민당의 파벌이나 정치엘리트에 주목하여 본다면, 우선, 2000년 모리(森) 수상 등장 이후, 자민당의 주류파벌이 친중정책, 요시다노선을 계승하는 다나카(田中)파에서 친미주의를 표방하면서도 헌법개정, 자주국방노선, 재군비 등에 적극적인 정치적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세이와정책연구회로 변화한 점이다.

또 다른 원인은 자민당 파벌의 역할 변화, 특히, 자민당 총재의 선출 방법의 변화, 정치적 영향력의 변화 등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현재 자민당총재는 국민에게 인기 있는 정치가가 선출되고 있다. 자민당의원 중에서 총재 즉 수상에 출마하려는 정치인은 대중영합적인 발언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일본사회가 장기적 경기침체

속에서 보수화, 민족주의적 정서가 강화되는 가운데 여론의 주목과 대중적인 인기를 높이기 위해서 대외정책에서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더구나 현재 아베수상이 소속되어 있는 파벌은 헌법개정, 자주국방, 재군비 등에 관련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2015년 9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아베 수상은 무투표로 재선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세이와정책연구회가 당분간 자민당을 지배하게 될 것이며, 현재와 같은 보수우경화 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Ⅲ. 자민당 파벌의 현황과 정책노선

그럼, 일본 자민당 주요파벌의 현황과 정책노선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전후 일본정치를 지배해 온 1955년체제는 자민당 장기 집권체제이다. 파벌에 주목해 본다면, 자민당은 파벌의 연합체이다. 자민당의 정책결정이나 포스트 배분은 파벌을 기본 단위로 이루어졌다. 정책결정도 파벌 간의 조정과정을 거쳐 이루어져 왔다. 그러므로 자민당 대한 정책의 결정과정, 결정자, 그리고 결정논리 등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파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자민당의 파벌은 구 자유당계열(보수본류)과 구 민주당계열(보수 방류)에서 분화된 집단이다. 그러므로 파벌의 분화과정이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특정파벌이 지향하는 정책적 이데올로기나 정책내용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자유당계열과 민주당계열의 정책적 이데올로기나 정책방향은 서로 구별되어 왔기 때문이다. 즉, 자유당계열은 요시다(吉田) 노선을 추구하는 정치집단의 분화이고 민주당계열은 하토야마(鳩山一郎) 노선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자유당계열의 파벌은 주로 온건파(비둘기파) 성향이 강하고 민주당계열의 파벌은 강경파(매파)적 성향

이 강하다. 재정정책이나 경제정책면에서도 차별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외교문제나 대외정책에서 각 파벌의 노선이나 내용, 그리고 특징 등에 대해서 분석해 보기로 한다.

〈표 1〉 자민당의 주요 파벌과 소속의원 현황¹⁵⁾

파벌	대표자	의원수	중의원	참의원
清和政策研究会(細田派)	細田博之	93	60	33
平成研究会(額賀派)	額賀福志郎	50	29	21
宏池会(岸田派)	岸田文雄	43	30	13
為公会(麻生派)	麻生太郎	36	28	8
志師会(二階派)	二階俊博	34	27	7
近未来政治研究会(石原派)	石原伸晃	14	13	1
番町政策研究所(大島派)	大島理森	11	8	3

출처: 『國會便覽』, 2015.

1. 세이와(清和)정책연구회

1) 세이와정책연구회의 변천과정과 정책노선

세이와정책연구회는 현재 호소다(細田博之)가 파벌의 영수이다. 지금까지 마치무라(町村) 파벌로 불리어 왔으나 2014년 12월 파벌영수인 마치무라(町村信孝)가 국회의장에 취임하면서 호소다가 파벌을 계승하였다¹⁶⁾. 세이와(清和)정책연구회는 1990년대에 접어들어 자민당의 파벌해소 정책에 따라 정책집단으로 형태가 변화되면서 정책연구회라는 이름으로 변모하였다. 호소다(細田派) 파벌은 후쿠다(福田赳夫) 수상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호소다 파벌의 정치적 성향은 자민당 통합 시 일본민주당소

15) 각 파벌에 소속된 의원 수는 2015년 8월 6일 현재를 기준으로 파악한 숫자이다.

16) 자민당 파벌정치에서 파벌의 대표가 총재 또는 국회의장에 취임하게 되면, 파벌에서 탈퇴하는 것이 관례이다. 2014년 12월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었고 새롭게 구성된 중의원 의장에 마치무라(町村) 파벌의 영수인 본인이 취임하게 되면서 파벌을 이탈하였다. 퇴임 이후에는 다시 파벌로 복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던 마치무라가 2015년 6월 사망하게 되면서 호소다가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속 정치지도자인 기시(岸信介) 수상, 하토야마(鳩山一郎) 수상의 정치적 네트워크나 정치성향을 계승하고 있다. 일본민주당은 反요시다(吉田茂) 노선을 표방하는 정치적 그룹이다. 일본민주당은 친미주의를 표방하면서도 헌법개정, 자주국방노선, 재군비 등에 적극적인 정치적 성향을 나타내고 있어 강경파로 구분되고 있다. 냉전시기에는 반공산주의적 성향에 따라 친한(親韓), 친대만(親臺灣) 성향을 토대로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기도 하였다.¹⁷⁾

호소다 파벌은 1962년에 후쿠다(福田赳夫)가 결성한 당풍쇄신연맹(黨風刷新聯盟)이 파벌형성의 토대가 되었다. 1970년 사토(佐藤栄作) 수상 집권시기에 후쿠다 파벌이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후쿠다(福田赳夫) 이후 파벌영수가 아베(安倍晋太郎)→미쓰즈카(三塚博)→모리(森喜朗)→마치무라(町村信孝)→호소다(細田博之)로 이어져왔다.

1970년 당시 후쿠다 파벌은 1972년 7월에 있었던 사토수상의 후계자를 선출하는 자민당총재선거를 위해서 결성되었다. 1972년 자민당총재선거에는 후쿠다(福田赳夫)와 다나카(田中角栄) 간 치열한 대결이 펼쳐졌다. 일명 가쿠후쿠전쟁(角福戰爭)이라고 불리는 두 사람의 총재경쟁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파벌정치의 분기점이 되었다. 1972년 자민당총재선거에서 결국 다나카가 승리하여 수상에 취임하였다.

그러나 다나카 수상이 록히드사건으로 사임하게 되면서 후쿠다는 1976년에 정권을 획득하였다. 수상에 취임한 후쿠다는 파벌해체를 주장하면서 자신의 파벌을 해체하였다. 하지만 1978년 자민당총재선거에서 오히라(大平)에게 패배하게 되면서 1979년 1월 후쿠다 파벌은 ‘清和会’로 재출범하게 되었다. 이후 현재 수상인 아베 신조의 아버지인 아베(安倍晋太郎) 파벌, 미쓰즈카(三塚博) 파벌시기에는 수상을 배출하지 못하고 비주류파벌이 되었다. 1993년 총선거에서 자민당은 야당으로 전락하였다.

17) 季武嘉也·武田知己, 『日本政黨史』, 東京: 吉川弘文館,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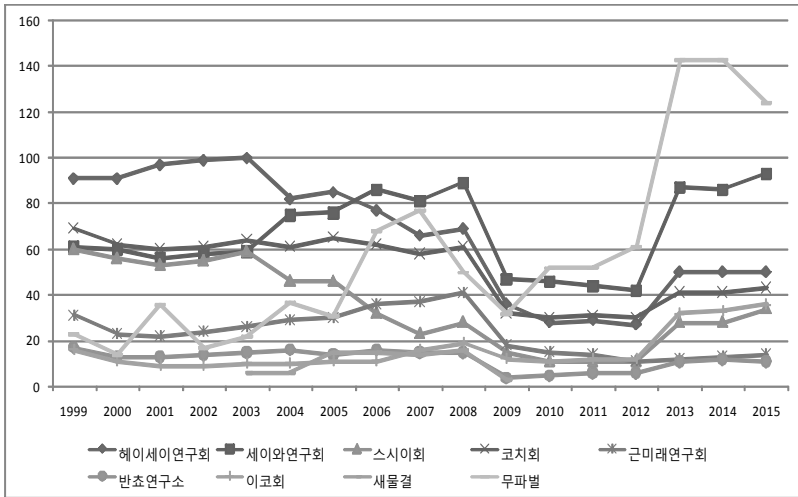
1994년 11월 자민당이 파벌해소를 추진하게 되면서 '清和會'는 해산될 수밖에 없었다. 그 대신 정책집단 결성이 인정되면서 21세기를 생각하는 모임(21世紀を考える会·新政策研究会)을 결성하고 회장직은 미쓰즈카(三塚博)가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다.

후쿠다 수상 이후, 비주류에 머물고 있던 미쓰즈카(三塚博) 파벌이 주류세력으로 등장하는 계기는 1998년 자민당 총재선거이다. 기존의 관례에 따르면, 자민당 총재선거에는 파벌의 영수가 출마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1998년 총재선거에서 미쓰즈카 파벌은 영수인 미쓰즈카 대신 고이즈미(小泉純一郎)를 총재후보로 출마시키게 되었다. 고이즈미의 출마는 미쓰즈카 파벌 내 모리그룹이 주도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가메이(亀井静香)그룹이 반발, 이탈하여 독자적으로 가메이 파벌을 형성하게 되면서 분열되었다.

1998년 12월 모리가 파벌회장을 맡게 되면서 현재의 '세이와(清和)정책연구회'로 파벌 명칭을 바꾸게 되었다. 그리고 2000년에 모리가 총재로 선출되면서 주류파벌로 부상하게 되었다. 자민당은 파벌의 보스가 수상에 취임하면 파벌에서 탈퇴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 결국, 2000년 4월 고이즈미가 세이와정책연구회의 회장이 되었다. 2001년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고이즈미가 당선되면서 모리 파벌은 여전히 총재파벌이 되었다. 더구나 2001년부터 2005년 총선거까지 자민당 의석이 증가하면서 주류파벌인 모리파의 세력은 급증하였다. 2005년 총선거에서는 자민당 최대파벌인 하시모토(橋本) 파벌을 제치고 당내 최대파벌로 부상하게 되었다.

2006년 9월 고이즈미 수상의 후임 자민당총재선거에서 아베 신조가 선출되었다. 이후 후쿠 다야스오(福田康夫)가 자민당의 총리로 선출되고 총리에 취임하였다. '세이와정책연구회'는 모리 수상 이후 4대에 걸쳐 수상을 배출하였다.

〈그림 1〉 자민당 파벌구성원의 변화 현황



출처: 중의원에서 매년 발행하는 『國會便覽』을 토대로 작성.

그리고 2008년 9월 선출된 아소(麻生太郎) 내각에서는 세이와정책연구회 출신의 호소다(細田博之)가 간사장을 맡게 되면서 주류파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2009년 총선거에서 자민당은 참패하여 야당으로 전락하였다. 야당시절에는 宏池會 출신의 다니가키(谷垣禎一)총재가 당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그러나 2012년 9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현재의 아베(安倍晋三) 수상이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서 마치무라 파벌은 다시금 총재직을 되찾아오게 되었다.

2012년 9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는 마치무라 파벌 회장인 마치무라 본인이 출마를 선언하였다. 마치무라는 전임 총재이자 수상을 역임한 아베 전 수상에게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아베는 이를 거절하고 총재선거에 출마하였다. 마치무라파벌에서 두 사람이 총재후보로 출마하게 됨으로써 분열되었다. 그러나 총재선거운동 기간 중에 파벌회장인 마치무라는 건강상의 이유로 선거운동을 중지하고 중도포기하고 말았다. 결국 총재선

거에서 아베가 파벌 내의 지지와 다른 파벌과의 연합에 성공하게 되면서 총재에 재선되었다. 2012년 총재선거에서 파벌의 합종연횡에 따라 아베가 당선되고 자민당이 2012년 12월 총선거에서 여당으로 복귀하게 되면서 파벌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2012년 총선거, 2013년 참의원선거, 그리고 2014년 총선거에서 자민당은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 각종 선거에서 승리하는 자민당 의원수를 증가시켰다. 자민당 의원수의 증가는 총재파별인 호소다 파벌의 급성장을 가져왔다. 2012년 자민당이 야당시절에는 42명에 불과하였으나 총선거에서 대승으로 87명, 또 다시 2013년 참의원선거, 2014년 총선거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2015년에는 93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그림1). 중의원이 60명, 참의원이 33명으로 모두 증가 추세이다. 반면, 2003년 1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세를 과시하던 헤이세이연구회는 이후 3분의 1 이하로 감소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50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표 2〉 세이와(清和)정책연구회의 역대 회장과 재임기간

회장순번	회장	파벌명칭	재임기간
1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	福田派	1979년 - 1986년
2	아베 신타로(安倍晋太郎)	安倍派	1986년 - 1991년
3	미쓰즈카 히로시(三塚 博)	三塚派	1991년 - 1998년
4	모리 요시로(森 喜朗)	森派	1998년 - 2000년
5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森派	2000년 - 2001년
6	모리 요시로(森 喜朗)	森派	2001년 - 2006년
7	마치무라 노부다카(町村信孝) 나카가와 히데나오(中川秀直) 다니가와 히데요시(谷川秀善)	町村派	2007년 - 2009년
8	마치무라 노부다카(町村信孝)	町村派	2009년 - 2014
9	호소다노부유키(細田博之)	細田派	2014년 - 현재

출처: 『國會便覽』, 2015.

2) 세이외정책연구회의 인적구성

자민당 최대파벌이자 아베총리가 소속되어 있는 세이외정책연구회는 9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파벌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3〉 세이외정책연구회 파벌 소속의원의 현황

이름	당선회수	중/참의원	이름	당선회수	중/참의원
町村信孝	11	중의원	佐々木 紀	1	중의원
衛藤征士郎	10	중의원	白須賀 貴樹	1	중의원
細田博之	8	중의원	田畑 裕明	1	중의원
宮路和明	8	중의원	東郷 哲也	1	중의원
坂本剛二	7	중의원	豊田 真由子	1	중의원
塩谷 立	7	중의원	根本 孝典	1	중의원
木村太郎	6	중의원	藤原 崇	1	중의원
下村博文	6	중의원	堀井 学	1	중의원
高木 毅	5	중의원	前田 一男	1	중의원
馳 浩	5	중의원	三ツ林 裕己	1	중의원
松野 博一	5	중의원	宮沢 博行	1	중의원
吉野 正芳	5	중의원	山田 美樹	1	중의원
柴山 昌彦	4	중의원	義家 弘介	1	중의원
谷川 弥一	4	중의원	岩城 光英	3	참의원
西村 康稔	4	중의원	岡田 直樹	2	참의원
松島 みどり	4	중의원	北川 イツセイ	2	참의원
稲田 朋美	3	중의원	末松 信介	2	참의원
奥野 信亮	3	중의원	中川 雅治	2	참의원
北村 茂男	3	중의원	野上 浩太郎	2	참의원
鈴木 淳司	3	중의원	山谷 えり子	2	참의원
中山 恭秀	3	중의원	山本 順三	2	참의원
西村 明宏	3	중의원	赤石 清美	1	참의원
萩生田 光一	3	중의원	江島 潔	1	참의원
宮下 一郎	3	중의원	高階 恵美子	1	참의원
越智 隆雄	2	중의원	長谷川 岳	1	참의원
大塚 拓	2	중의원	若林 健太	1	참의원
龜岡 偉民	2	중의원	世耕 弘成	4	참의원
関 芳弘	2	중의원	橋本 聖子	4	참의원
高島 修一	2	중의원	伊達 忠一	3	참의원
土井 亨	2	중의원	磯崎 陽輔	2	참의원

中根 一幸	2	중의원	西田 昌司	2	참의원
松本 文明	2	중의원	古川 俊治	2	참의원
青山 周平	1	중의원	丸川 珠代	2	참의원
穴見 陽一	1	중의원	森 まさこ	2	참의원
池田 佳隆	1	중의원	赤池 賛章	1	참의원
小田原 潔	1	중의원	石田 昌宏	1	참의원
大西 英男	1	중의원	太田 房江	1	참의원
加藤 寛治	1	중의원	北村 経夫	1	참의원
神田 憲次	1	중의원	酒井 履行	1	참의원
菅家 一郎	1	중의원	滝波 宏文	1	참의원
菅野 さちこ	1	중의원	堀井 巖	1	참의원
岸 信夫	1	중의원	山田 修路	1	참의원
今野 智博	1	중의원			

출처: 『國會便覽』, 2014.

2. 헤이세이연구회(平成研究会)

1) 헤이세이연구회의 역사적 변천과 정책노선

헤이세이연구회는 자민당의 보수분류를 대표하는 파벌이다. 현재는 누카가(額賀) 파벌로 불리고 있다. 헤이세이연구회는 자민당 통합 이전 요시다 시게루(吉田茂)의 자유당이 그 기원이다. 이후 주산회(佐藤栄作派), 목요클럽(田中角栄派)로 이어지는 자민당의 주류파벌의 하나이다. 다나카 파벌의 영향으로 친중국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헤이세이연구회의 형성은 1985년 2월 다케시타 노보루(竹下登)와 가네마루 신(金丸信)가 중심이 되어 만든 다나카 파벌 내 연구모임인 創政会로부터 시작되었다. 1987년 7월 4일 다나카(田中) 파벌로부터 독립하여 다케시타를 회장으로 하는 経世회를 결성하게 되면서 다케시타파벌이 시작되었다. 다케시타 파벌 이후, 오부치(小淵) 파벌→하시모토(橋本)→쓰시마(津島) 파벌을 거쳐 현재 누카가 파벌에 이르고 있다.

다케시타는 수상재직 기간은 물론 리쿠르트사건으로 사임한 이후에

도 자민당의 최대파벌 보스로서 군림하였다. 그리고 인사문제는 물론 정치자금 면에서도 자민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 다케시타 파벌은 파벌내부의 기율이 매우 엄격하여 강한 단결력을 특징으로 한다. 다케시타가 수상에 취임하면서 파벌은 가네마루가 이끌게 되었다. 그러나 다케시타가 수상을 그만둔 이후에도 가네마루가 파벌을 장악하게 되면서 두 사람간 갈등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특히, 가네마루그룹의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가 자민당 간사장을 역임하는 시기에는 차기 수상후보를 사전에 면담할 정도로 파벌의 영향력이 막강하였다. 다케시타 파벌 내에서도 오자와는 경세회 파벌회장대행에 취임, 가네마루의 비호 아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당내에서 비판받게 되었다.

1992년 사가와큐빈(佐川急便)사건에 연루되어 가네마루가 다케시타 파벌의 회장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파벌 내 권력투쟁이 발생하였다. 권력투쟁은 결국 오부치(小淵惠三)가 승리하여 회장에 취임하게 되어 오부치 파벌로 변하게 되었다. 파벌 내 권력투쟁에서 패배한 오자와, 하타(羽田)그룹은 이탈하여 개혁포럼21(하타 파벌)을 결성하게 되었다. 하타 파벌의 형성과 자민당 탈당은 오부치 파벌을 당내 소수파벌로 전락시키게 되었다. 1993년 총선거에서 자민당은 단독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였다. 그해 6월 자민당을 탈당한 하타 파벌은 新生黨을 결성하여 호소가와(細川)의 일본신당과 연합하여 1993년 8월 비자민연립정권을 수립하게 되었다. 결국 자민당은 야당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호소가와내각이 1994년 4월 사직하게 되면서 하타내각이 성립되었으나 역시 단명에 그치고 말았다. 뒤이어 무라야마(村山)내각이 탄생하게 되면서 자민당은 연립여당으로 복귀하게 되었다. 무라야마내각에서 오부치파벌은 세력을 점차 회복하여 자민당 주류파벌로 재부상하게 되었다. 1996년 1월 무라야마 총리 후임 수상에는 오부치 파벌의 하시모토(橋本龍太郎)가 당선되었다. 1993년 야당으로 전락한 이후, 經世會 간판을 내리고

헤이세이연구회로 개칭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6년 자민당내각이 다시 성립되면서 헤이세이연구회는 다시 총리파별로 복귀하게 되었다.

1998년 7월 실시된 참의원선거에서 자민당은 소비세인상안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나 참패하고 말았다. 선거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시모토가 사임하게 되면서 후임총리에는 헤이세이연구회의 회장인 오부치가 선출되었다. 파별회장인 오부치가 총리가 되면서 헤이세이연구회의 새로운 회장은 와타누키(綿貫民輔)가 맡게 되었다. 오부치 제1차내각은 자민당 단독내각이었으나 제2차 내각은 오자와의 자유당, 그리고 공명당과 연립내각을 구성하였다. 제2차 내각에서 자유당이 연립을 이탈하게 되면서 보수당, 공명당이 연립파트너로 참가하였다. 그러나 2000년 7월 오부치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서 모리내각이 탄생하게 되었다. 헤이세이연구회는 오부치 이후 총리후보를 배출하지 못하게 되면서 총재파별 자리를 모리파별에게 넘겨주게 되었다.

2001년 4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모리파별의 고이즈미 후보와 오부치 파별의 하시모토 후보가 격돌하게 되었으나 고이즈미 후보의 승리로 오부치 파별은 현재까지도 주류파별에서 밀려난 상태이다. 특히, 고이즈미정권에서 오부치 파별은 '저항세력'으로 낙인이 찍히면서 당 집행부는 물론 2005년 총선거에서는 자민당의 공천을 받지 못한 후보자가 속출하였다. 2005년 총선거 직전 파별 의원수는 85명에서 2006년 77명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2004년 일본치과연맹의 정치헌금문제가 터져 나오면서 하시모토는 파별회장을 사임하였다. 더구나 2005년 총선거에서는 파별회장을 맡고 있는 와타누키(綿貫民輔)가 우정민영화법안에 반대함으로써 자민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결국 하시모토와는 당내 제1파별 자리를 모리파별에 넘겨주게 되었다.

2005년 총선거에서 고이즈미가 추천하는 신인의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모리파는 세력이 급증하게 되었다. 이후 헤이세이연구회는 쓰시마

유지(津島雄二)가 파별회장을 역임하고 현재에는 누카가가 회장직을 맡고 있다. 그러나 오부치 총리 이후, 유력한 총리후보를 갖지 못하고 비주류 파벌에 머무르고 있다. 2008년 후쿠다 총리의 후임을 선출하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를 후보로 옹립하였으나 5위에 그치고 말았다. 이후, 이시바는 파별해소를 주장하면서 무파벌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2015년 9월 28일, 차기 자민당 총재선거를 준비하기 위하여 새롭게 파벌을 결성하였다. 이시바 파벌(水月會)에는 20명이 참가하고 있다.

2015년 파벌의 세력분포를 보더라도 세외와정책연구회는 93명인데 불구하고 헤이세이연구회(額賀派)는 50명에 그치고 있다.

〈표 4〉 헤이세이연구회의 역대 회장과 재임기간

회장순번	회장	파벌명칭	재임기간
1	다케시타 노보루(竹下登)	竹下派	1985년 ~ 1987년
2	가네마루 신(金丸信)	竹下派	1987년 ~ 1992년
3	오부치 게이조(小淵恵三)	小淵派	1992년 ~ 1998년
4	오타누키타미스케(綿貫民輔)	綿貫派	1998년 ~ 2000년
5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橋本派	2000년 ~ 2004년
6	공석	橋本派	2004년 ~ 2005년
7	쓰시마 유지(橋本雄二)	橋本派	2005년 ~ 2009년
8	누카가 후쿠지로(額賀福志郎)	額賀派	2009년 ~ 현재

출처: 『國會便覽』, 2014.

2) 헤이세이연구회(額賀派)의 인적구성

자민당 제2파벌인 누카가 파벌은 2014년 현재 5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파벌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5〉 누카가(額賀派) 파벌 소속의원의 현황

이름	당선회수	중/참의원	이름	당선회수	중/참의원
額賀 福次郎	10	중의원	新谷 正義	1	중의원
船田 元	10	중의원	津島 淳	1	중의원
佐田 玄一朗	8	중의원	中谷 真一	1	중의원
茂木 敏充	7	중의원	野中 厚	1	중의원

今津 寛	6	중의원	比嘉 奈津実	1	중의원
田村 憲久	6	중의원	宮崎 政久	1	중의원
三原 朝彦	6	중의원	関口 昌一	3	참의원
小淵 優子	5	중의원	山崎 力	3	참의원
櫻田 義孝	5	중의원	島尻 安伊子	2	참의원
新藤 義孝	5	중의원	二之湯 智	2	참의원
竹下 亘	5	중의원	野村 哲郎	2	참의원
林田 彪	5	중의원	松村 楊史	2	참의원
山口 泰明	5	중의원	青木 一彦	1	참의원
渡辺 博道	5	중의원	岩井 茂樹	1	참의원
加藤 勝信	4	중의원	宇都 隆史	1	참의원
西銘 恒三郎	3	중의원	福岡 資魔	1	참의원
大塚 高司	2	중의원	渡辺 猛之	1	참의원
金田 勝年	2	중의원	尾辻 秀久	5	참의원
木原 稔	2	중의원	吉田 博実	3	참의원
とかしき なおみ	2	중의원	石井 準一	2	참의원
橋本 岳	2	중의원	石井 みどり	2	참의원
原田 憲治	2	중의원	佐藤 伸秋	2	참의원
平口 洋	2	중의원	佐藤 正久	2	참의원
若宮 健児	2	중의원	牧野 たかお	2	참의원
池田 道孝	1	중의원	島田 三郎	1	참의원

출처: 『國會便覽』, 2014.

3. 코치(宏池)정책연구회(岸田派)

1) 파벌의 변천과정과 정책노선

코치정책연구회는 자민당 합당이전 자유당의 요시다파벌에서 분파한 집단이다. 파벌 결성자인 이케다(池田勇人)는 마에오(前尾繁三郎), 오히라(大平正芳), 스즈키(鈴木善幸), 미야자와(宮沢喜一) 등 관료들을 규합하여 파벌을 형성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코치정책연구회는 다른 파벌에 비해 이탈자가 적은 파벌이기도 하다. 그러나 고노(河野洋平) 총재나 다니가키(谷垣禎一) 총재와 같이 자민당이 야당인 시절에 총재를 맡은 불운의 파벌이기도하다. 코치정책연구회는 자민당 내에서 중도파로 인식되

고 있다. 정책적인 지향점을 살펴보면, 안전보장측면에서는 미일관계를 중시하고 일본정치세력 중에서는 온건파로 통용되고 있다. 고이즈미정권 이후에는 자민당의 주류파벌이 보수화, 우경화되는 경향 속에서 코치정책연구회는 자유주의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코치정책연구회는 파벌영수가 이케다(池田派)→마에오(前尾派)→오히라(大平派)→스즈키(鈴木派)→미야자와(宮沢派)→가토(加藤派)→코가(古賀派)→기시다(岸田派) 등으로 변화하여 왔다. 2009년 9월 자민당은 총선거에서 패배하여 야당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아소 총재의 후임을 선출하는 총재선거에서 코치정책연구회 소속 다니가키가 당선되었다. 그러나 야당기간 동안 다니가키는 민주당에 대항세력의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 리더십에서도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하게 되었다. 결국 2012년 9월 자민당 총재선거에 출마를 포기하게 되면서 주류파벌로 재진입하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2) 코치정책연구회의 인적구성

코치정책연구회에 소속된 의원은 41명(2014년)으로 의원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6〉 코치정책연구회의 소속의원 현황

이름	당선회수	중/참의원	이름	당선회수	중/참의원
金子 一義	9	중의원	小林 史明	1	중의원
岸田 文雄	7	중의원	古賀 篤	1	중의원
鈴木 俊一	7	중의원	国場 幸之助	1	중의원
塩崎 添久	6	중의원	新開 裕司	1	중의원
竹本 直一	6	중의원	末吉 光徳	1	중의원
根本 匠	6	중의원	武井 俊輔	1	중의원
宮腰 光寛	6	중의원	藤丸 敏	1	중의원
望月 義夫	6	중의원	堀内 のりこ	1	중의원
山本 幸三	6	중의원	村井 英樹	1	중의원
小野寺 五典	5	중의원	吉川 赧	1	중의원

北村 誠吾	5	중의원	渡辺 孝一	1	중의원
福井 照	5	중의원	岸 宏一	3	참의원
上川 陽子	4	중의원	藤井 基之	2	참의원
三ツ矢 憲生	4	중의원	水落 敏榮	2	참의원
佐藤 章	3	중의원	金子 原二郎	1	참의원
寺田 稔	3	중의원	宮沢 洋一	1	참의원
葉梨 康弘	3	중의원	林 芳正	4	참의원
木原 聖二	2	중의원	松山 政司	3	참의원
盛山 正仁	2	중의원	二之場 武史	1	참의원
岩田 和親	1	중의원	森屋 宏	1	참의원
小島 敏文	1	중의원			

출처: 『國會便覽』, 2014년.

4. 이코카이(為公会: 麻生派)

1) 이코카이(為公会)의 변천과정과 정책노선

현재의 아소파(為公会)는 코치정책연구회에서 분파한 자민당의 파벌이다. 1994년 자민당이 야당에서 여당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고노(河野洋平)그룹이 이탈하여 만든 파벌이다. 당시 하타 수상이 사임하게 되면서 자민당은 사회당과 신당 사키가케와 연립을 구성하여 여당으로 복귀한다. 이후, 사회당 무라야마 수상이 사임을 표명하면서 자민당에서는 후계 수상 선출을 위한 당총재 선거가 실시되었다. 당시 자민당의 총재는 고노(河野洋平)였다. 하지만 코치정책연구회 내에서 미야자와의 후임회장을 차지하기 위한 대립이 고노(河野洋平)와 가토(加藤紘一) 간에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무라야마 수상의 후임을 선출하기 위한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가토는 다른 파벌 후보인 하시모토 류타로를 지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고노는 결국 총재선거출마를 단념하고 말았다. 이를 계기로 고노그룹은 1998년 12월 파벌을 이탈하여 大勇會를 결성하였다. 大勇會는 친고노파, 반가토파의 인적네트워크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고노는 친중국적 성

향과 온건파적 성격이 강하다. 그렇지만 아소타로는 친중국적 경향대신 친대만적 성향을 가진 강경파로 알려져 있다.

2006년 9월 20일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大勇會의 대표주자인 아소타로(麻生太郎)가 136표를 획득하여 차점자가 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차기 총재로서 이미지가 만들어지면서 아소 대망론이 대두되었다. 2006년 12월 15일 아소가 大勇會를 계승하여 아소파가 성립되었다. 아소는 2007년 9월 23일 아베신조 수상의 후임을 선출하는 총재선거에서 197표를 얻어 여전히 차점자를 차지하였다. 아소의 득표는 지난 2006년 총재선거보다 증가하여 총재선출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었다. 이어 2008년 후쿠다내각에서는 아소가 간사장을 맡게 되면서 주류파로 진입하게 되었다. 2008년 9월 다시 후쿠다 수상의 사임에 따른 후임 총재선거에서 아소는 결국 총재로 당선되어 수상이 되었다. 그러나 2009년 9월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하여 야당으로 전락하게 되면서 사임하게 되었다. 2012년 9월에 실시된 총재선거에서 아소 파벌은 아베 신조를 지지하여 총재 당선에 기여하게 되었다. 2012년 12월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하여 여당으로 복귀하게 되면서 아소는 부총리 겸 재무장관을 맡고 있다. 그리고 2012년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대승하면서 신인의원들이 급증하였다. 신인의원들이 아소파에 대거 가입하면서 파벌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2) 이코카이의 소속의원 현황

〈표 7〉 아소파(為公會)의 소속의원

이름	당선회수	중/참의원	이름	당선회수	중/참의원
麻生 太郎	11	중의원	工藤 彰三	1	중의원
森 英介	8	중의원	齋藤 洋明	1	중의원
山口 俊一	8	중의원	白石 徹	1	중의원

岩屋 毅	6	중의원	中村 裕之	1	중의원
河野 太郎	6	중의원	長坂 康正	1	중의원
原田 義昭	6	중의원	船橋 利実	1	중의원
松本 純	5	중의원	牧島 かれん	1	중의원
井上 信治	4	중의원	宮川 典子	1	중의원
西川 京子	4	중의원	務台 俊介	1	중의원
永岡 桂子	3	중의원	武藤 貴也	1	중의원
あかま 二郎	2	중의원	山田 賢司	1	중의원
鈴木 響祐	2	중의원	大家 敏志	1	참의원
園浦 健太郎	2	중의원	藤川 政人	1	참의원
武藤 容治	2	중의원	鴻池 祥肇	4	참의원
井林 辰憲	1	중의원	塚田 一郎	2	참의원
井上 貴博	1	중의원	豊田 俊郎	1	참의원
大見 正	1	중의원			

출처: 『國會便覽』, 2014.

5. 시스이카이(志師會: 二階派)

1) 시스이카이(二階派)의 변천과정과 정책노선

니카이파는 1998년 11월 정책과학연구소(政策科學研究所) 파벌, 즉 나카소네(中曾根康弘)파가 후계를 둘러싸고 대립하면서 야마자키(山崎拓)가 이탈하게 되었다. 그러자 나카소네를 중심으로 하는 잔류세력이 당시 세이와카이(清和會)를 이탈한 카메이(亀井静香)그룹과 통합하여 만든 것이 현재의 니카이파(志師會)이다. 나카소네파 이후 무라카미(村上)·카메이(亀井派) → 에토(江藤)·카메이(亀井派) → 가메이(亀井派) → 구카메이(旧亀井派) → 이부키(伊吹派) → 니카이(二階派)로 변화하여 왔다.

2001년 고이즈미정권기에 들어서는 ‘저항세력’으로 분류되어 고이즈미개혁을 비판하는 세력이 되었다. 2003년 10월 가메이가 파벌회장에 취임하였고 나카소네는 고이즈미 수상의 70세 이상 후보자 공천불가 방침에 따라 정계를 은퇴하게 되었다. 2005년 우정민영화 법안성립과정에서는 반대표를 행사하여 소속의원들이 자민당 공천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서 가메이는 회장직을 사임하고 자민당을 이탈하였다. 이후 이부키(伊吹文明: 伊吹派) 파로 변화하였다. 이후 2012년 12월 26일 자민당이 여당으로 복귀하면서 이부키가 국회의장에 선출되었다. 이부키는 관례에 따라 파벌을 이탈하였으며 현재 니카이(二階俊博)가 파벌에 이끌고 있다.

정책노선은 개헌지지파, 대북한 강경파, 외국인참정권 반대, 인권옹호법 반대, 특히, 외국인의 인권옹호법 반대를 주장하는 의원연맹에 참가하는 의원수가 많다. 일본의 전통문화 강조, 우정민영화에 반대하고 사회적 양극화에 비판적인 의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과거 건설족, 운수족 출신 의원들이 다수 존재하여 공공사업 중심의 경기부양책을 주장하는 성향이 강하다.

2) 시스이카이(二階派)의 소속의원 현황

〈표 8〉 니카이파의 소속의원

이름	당선회수	중/참의원	이름	당선회수	중/참의원
二階 俊博	10	중의원	門 博文	1	중의원
河村 建夫	8	중의원	金子 恵美	1	중의원
林 幹雄	7	중의원	木内 均	1	중의원
江崎 鐵磨	5	중의원	小林 鷹之	1	중의원
西川 公也	5	중의원	清水 誠一	1	중의원
谷 公一	4	중의원	高木 宏寿	1	중의원
長島 忠美	3	중의원	武部 新	1	중의원
伊東 良孝	2	중의원	中川 郁子	1	중의원
伊藤 忠彦	2	중의원	宮崎 謙介	1	중의원
松本 洋平	2	중의원	鶴保 康介	3	참의원
秋元 司	1	중의원	片山 さつき	1	참의원
小倉 奨信	1	중의원	中原 八一	1	참의원
大岡 敏孝	1	중의원	衛藤 晟一	2	참의원
勝沼 榮明	1	중의원	柳本 卓治	1	참의원

출처: 『國會便覽』, 2014.

6. 근미래정치연구회(近未来政治研究会: 石原派)

1) 근미래정치연구회의 변천과정과 정책노선

1998년 11월 30일 나카소네파(中曾根康弘)에서 이탈한 야마자키(山崎拓)가 중심이 된 37명으로 구성된 파벌이다. 헌법개정에 적극적인 점이 특징적이다. 파벌구성원들이 개헌론과 관련된 단행본을 출판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고이즈미정권에서 야마자키(山崎拓)는 자민당 간사장, 부총재를 맡아 주류파벌이었다. 그러나 2003년 중의원선거에서 낙선하여 내각총리보좌관에 임명되었다. 2005년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정계에 복귀하였다. 그러나 고이즈미의 후임총재를 선출하는 자민당총재선거에서 反아베노선을 표명하였다. 2007년 12월에는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信晃)가 파벌에 들어오면서 유력총재후보가 되었다. 2009년 총선거에서는 파벌의원이 37명에서 16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2012년 총선거에서는 파벌회장인 야마자키(山崎拓)가 불출마를 선언하고 회장직을 이시하라(石原信晃)가 이어받았다. 대북한정책에서는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야마자키(山崎拓)가 북한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2) 근미래정치연구회의 소속의원

〈표 9〉 이시하라파의 소속 의원

이름	당선회수	중/참의원	이름	당선회수	중/참의원
野田 毅	14	중의원	うへの 賢一郎	2	중의원
保岡 興治	12	중의원	富岡 勉	2	중의원
石原 伸晃	8	중의원	鬼木 誠	1	중의원
平沢 勝榮	6	중의원	田野瀬 太道	1	중의원
坂本 哲志	4	중의원	湯川 一行	1	중의원
森山 裕	4	중의원	木村 義雄	1	참의원
石原 宏高	2	중의원			

출처: 『國會便覽』, 2014.

7. 반초정책연구소(番町政策研究所: 大島派)

1) 반초정책연구소의 변천과정과 정책노선

오시마파(番町政策研究所)는 전후 초기 개진당(改進黨)에서 출발한 자민당의 파벌이다. 전전 2대정당의 하나인 입헌민정당, 전후 중도정당인 국민협동당의 인적네트워크집단인 미키다케오(三木武夫), 가와모토 도시오(河本敏夫) 계열의 파벌이다. 미키·마쓰무라(三木·松村派)→ 미키(三木派)→ 가와모토(河本派)→ 고무라(高村派)→ 오시마(大島派)로 변천해 왔다. 자민당 내 좌파적 성향을 가진 의원들이다. 정책노선은 중도적 성향이 강하다.

미키(三木)는 이시바시(石橋)내각, 이케다(池田)내각에서 간사장, 그리고 기시(岸)내각, 사토(佐藤)내각에서도 간사장을 역임하였다. 1964년 총재선거에서 마쓰무라(松村)가 이탈하여 미키 파벌이 되었다. 1972년 다나카와 후쿠다가 대결하는 총재선거에 출마하여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결선투표에서 다나카를 지지하여 중일국교정상화시기까지는 주류파에 머물렀다.

1974년 이후 미키 파벌은 반주류파벌로 전락하게 되었다. 다나카 수상 사임이후, 미키는 수상에 취임하였다. 그러나 1976년 12월 자민당 내 미키 수상에 대한 퇴임요구(三木下ろし)로 퇴진하였다. 1980년 사회당이 제출한 오히라 수상에 대한 내각불신안에 기권하여 가결의 단초를 제공하는 등 자민당 반주류파벌로 존재하였다. 1980년 미키 파벌을 해산하고 새로운 정책연구회(河本派)를 결성하였다. 1982년 스즈키 수상의 후임을 선출하는 자민당 총재선거에 가와모토가 출마하였으나 나카소네(中曾根康弘)에 패배하였다. 1995년 5월, 파벌명칭을 반초(番町)정책연구소로 개칭하고 고무라(高村正彦)가 회장을 맡게 되었다. 2012년 10월 아베내각이 발족되면서 고무라가 자민당부총재를 맡게 되면서 파벌회장이 교체되어

오시마(大島派) 파벌이 되었다. 반쵸(番町)정책연구소 출신의 총리는 미키와 가이후(海部俊樹) 2명이다.

2) 반쵸정책연구소의 소속 의원

〈표 10〉 오시마 파벌의 소속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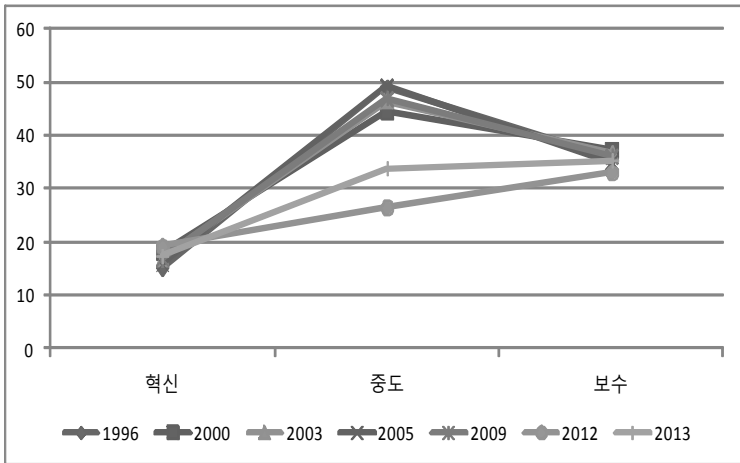
이름	당선회수	중/참의원	이름	당선회수	중/참의원
大島 理森	10	중의원	熊田 裕通	1	중의원
江渡 聡徳	5	중의원	高橋 ひなこ	1	중의원
伊藤 信太郎	4	중의원	佐藤 ゆかり	1	참의원
北川 知克	4	중의원	山東 照子	7	참의원
丹羽 秀樹	3	중의원	有村 治子	3	참의원
上杉 光弘	1	중의원	滝沢 求	1	참의원

Ⅳ. 자민당 주류파벌의 보수화와 대외정책의 변화

일본정치에서 외교문제와 안전보장 문제는 주요한 쟁점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12년 총선거 이후, 국내정치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특히, 자민당의 아베총재는 방위력 강화와 더불어 헌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개편하고 미국의 신방위전략과 연계하여 자위대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안보전략은 선거공약으로 제시되었고, 2012년 총선 이후, 미일가이드라인 개정, 집단적 자위권 허용과 자위대의 국제적 활동을 강화하는 안보법제를 2015년 9월 성립시키게 되었다. 2012년 총선에서 오사카지역정당으로 머물고 있던 유신정당이 전국 정당화하고 방위력 강화와 헌법개정 문제에 대해서 자민당과 거의 비슷한 입장을 취하게 되면서 안보법제가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일본의 외교와 관련하여 ‘미국중시노선’과 ‘아시아중시노선’간의 정책적 차이도 명확하게 나타났다. 자민당은 지난 2014년 총선 매니페스토에서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국익을 지키기 위하여 영토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를 위해 해상보안청의 인원, 장비, 예산 등을 확대하고, 집단적 자위권 인정과 영토·영해경비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림 2〉 일본 유권자의 이념적 위치 변화



출처: 일본 밝은선거추진협의회 선거의식조사결과를 토대로 작성(2014).

유신정당도 집단적 자위권 인정과 영토문제에 있어서도 자민당의 입장과 유사하다. 미일동맹을 심화시키고 실효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상방위력을 강화하고 방위비 지출과 관련하여 GDP 1% 제한을 철폐하겠다고 주장한다. 집단자위권의 행사 및 영해 통치를 규정하는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의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자민당과 마찬가지로 해상보안청의 경비력 강화, 자위대의 무기사용기준을 완화하는 등 보수적인 경향의 정책들을 제시하였다. 여기에 자민당을 탈당한 의원 또

는 보수계의원으로 구성된 차세대당, 개혁신당, 일본을 건강하게 하는 모임 등이 자민당의 안보정책에 동조하게 되면서 보수적 색채가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국민의 이념적인 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다고 봐도 무방하다(그림 2). 1996년과 2009년을 비교하면, 자신을 ‘혁신’으로 평가하는 유권자는 15.2%에서 16.9%로 증가하였다. 반대로 자신을 ‘보수’라고 평가하는 비율은 35.8%에서 36.1%로 거의 변하지 않았다. 보수정당이 압승한 2012년 총선에서는 ‘혁신’이 2.3%p 증가하였고, ‘보수’라고 평가하는 비율은 3.1%p 감소하였다. 2013년에는 ‘혁신’은 감소, ‘보수’는 증가하였지만 이념적 지형이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의 이념적인 성향은 보수화되고 있다. 국회의원의 보수화는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기존 국회의원들의 보수화 경향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보수적 성향의 신인 의원들의 대거 당선일 것이다. 기존의원집단의 보수화는 고이즈미정권 이후, 자민당주류파벌의 보수화 영향과 깊은 관계가 있다. 고이즈미→아베→후쿠다→아소→아베2차내각 등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보수강경파 내각의 성립이다. 이러한 보수적 성향이 강한 내각의 등장은 대한국정책은 물론 헌법개정, 집단적 자위권, 영토문제, 역사인식 문제 등에서 보수적인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자민당의 보수적인 정권은 대외인식에서 강경파인 세이와정책연구회(細田派)의 집권시기와 거의 일치한다.¹⁸⁾

국회의원의 보수화경향과 관련하여 또 다른 가능성은 보다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신인의원들이 당선되었다는 점이다. 민나노당(2009), 일어서라 일본(2010), 태양당(2012년), 일본유신회(2012), 차세대당(2014) 등과 같

18) 제2차 아베내각의 대신, 부대신, 정무관, 국회상임위원장 등 ‘일본의 파워엘리트 52인’의 소속파벌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주류파벌이자 강경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호소다 파벌의 숫자가 11명으로 가장 많다(동북아역사재단, 2013).

은 보수정당의 다당화현상으로 보수적인 의원비율이 높아졌다(고선규, 2014). 그리고 자민당의 경우, 총재 및 수상 리더십의 강화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공약에 총재의 보수적 성향이 반영되기 쉬운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더구나 최근에는 후보자 공모과정에서 우정민영화, 헌법개정, 아베노믹스, 소비세 인상 등과 같은 쟁점에 대한 입장이 공천유무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¹⁹⁾.

특히, 2000년 이후 모리수상으로부터 시작되는 세이와정책연구회의 집권은 미일의존관계의 심화와 중일관계, 한일관계의 악화시기와 일치된다. 1972년 다나카수상 시기 중일관계정상화 이후,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관계는 1980년대를 거쳐 1998년 강택민 국가주석의 일본방문(중국 국가원로서 최초방문), 1999년 중국 군대표단의 일본방문 등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대중관계는 친중국성향을 가진 다나카(田中) 파벌의 지배와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일관계도 김대중정부 시기까지 정상회담을 통한 현안문제 해결과 교과서문제, 야스쿠니참배문제, 어업협정문제, 정치가들의 망언문제와 같은 양국의 갈등을 관리하면서 유지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시기까지는 냉전시기와 중첩되면서 양국 간의 우호적 관계를 위한 외부적인 요인이 컸던 점도 작용되었을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2001년 고이즈미정권 이후에는 셔틀외교중지, 역사인식문제, 영토문제,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극단적인 형태로 한일관계는 물론 중일관계가 악화되었다. 이러한 갈등의 악화는 1970년대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주류파벌로 군림해온 다나카 파벌이 추진한 외교, 안보정책에 대한 세이와정책연구회의 궤도 수정과도 무관하지 않다²⁰⁾. 2000년 이후 세

19) 자민당은 후보자 공모과정에서 에세이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에세이작성 시, 선거의 현안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우정민영화와 관련하여서는 현역의원에게 찬성을 위한 서약서를 요구하였다.

20) 森康郎, 「일본의 정권교체와 향후 전망」, 단국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세미나 발표문, 2013과 2013년 11월 5일 인터뷰.

이와정책연구회(細田派)가 배출한 정치지도자는 2세의원이 대부분이다. 정치적 갈등이 부모세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서 자민당 내 갈등이나 대립, 차별은 더욱 증폭된 측면도 존재한다.

아베내각은 총재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조치를 취하면서도 장관이나 부대신, 정무관 임용에서 파벌의 균형을 고려하는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 결국 자민당의 여당 복귀와 총재선출, 정치적 포스트 배분이 파벌균형을 고려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향후 파벌의 기능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총재파벌의 정치적 성향이나 정책이 자민당의 정책결정, 더 나아가서는 대외정책결정에도 반영되는 폭이 커지면서 파벌은 일본정치의 중요한 변수로 재등장하게 될 것이다. 현재 아베수상의 임기는 2018년 9월까지이나 2020년 동경올림픽까지 연장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분간 아베정권이 지속되고 세이와정책연구회의 정책노선이 일본의 대외정책을 지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대한정책도 현재와 같은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日本空間)

논문 투고일 : 2015년 10월 30일

논문 심사일 : 2015년 11월 23일

게재 확정일 : 2015년 12월 3일

참고문헌

- 고선규, 「자민당정치의 변화: 새로운 레짐의 형성?」, 『한일군사문화연구』 6권, 2008.
- 고선규, 「2013년 참의원선거와 정당체계 분석」, 『21세기정치학회보』 제23집 3호, 2013.
- 김영일·김유정,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의 의미와 향후 전망」, 『이슈와 논점』 제692호, 국회입법조사처, 2013.
- 진창수·신정화, 『일본민주당정권의 탄생과 붕괴』, 서울: 오름, 2014.
- 明るい選挙推進協会, 『総選挙実体意識調査』, 東京: 明るい選挙推進協会, 2012.
- 明るい選挙推進協会, 『参議院通常選挙実体意識調査』, 東京: 明るい選挙推進協会, 2013.
- 飯尾 潤, 『日本の統治構造—官僚内閣制から議員内閣制へ』, 東京: 中公新書, 2007.
- 池田謙一, 「2001年参議院選挙と‘小泉効果’」, 『選挙研究』, 東京: 木鐸社, 2004.
- 井芹浩文, 『派閥再編成』, 東京: 中央公論社, 1988.
- 上神貴佳, 「党首選出過程の民主化—自民党と民主党の比較検討」, 『年報政治学』, 東京: 木鐸社, 2008.
- 石川真澄·広瀬道貞, 『自民党』, 東京: 岩波書店, 1989
- 宇野重規·川本裕子·岸井成格, 「2013年参議院選挙座談会」, 毎日新聞 7月 23日.
- 蒲島郁夫, 『戦後政治の軌跡』, 東京: 岩波書店, 2004.
- 佐藤 誠三郎/松崎 哲久, 『自民党政権』, 東京: 中央公論新社, 1986.
- 森康郎, 「일본의 정권교체와 향후 전망」 단국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세미나 발표문, 2013.
- 季武嘉也·武田知己, 『日本政黨史』, 東京: 吉川弘文館, 2011.
- 朝日新聞企画シリーズ. 「安定政権の条件」, 2013.
- 毎日新聞企画シリーズ. 「日本どこへ: 安倍大勝」, 2013.
- 産経新聞企画シリーズ. 「3分2時代: 政治はどこに向かうか」, 2013.
- 読売新聞企画シリーズ. 「ねじれ政治」, 2013.
- 濱本真補, 「首相と党内統治—人事と造反」, 日本選挙学会発表論文, 2015.
- 待鳥聡史. 2015. 「官邸権力の変容」, 日本選挙学会発表論文.

Tsutsumi Hidenori, 2013, *How and Why did Japan's LDP Adopt "Open" Candidate selection Process?* : The case of 2010, 2013 Upper House Election, Workshop on Candidate selection Methods in East Asia, Gakushuin University.

Abstract

The Features of LDP's Intraparty Factions and Political Conservative Shift in Japan

Seon-Gyu GO

This study has two main purposes. The first one is to investigate the policy characteristics of the intraparty factions . The second aim is to provide the political conservative shift for Korea in Japan. Prime Minister Shinzo Abe was re-elected on Sept. 8 as president of the ruling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unopposed. He is set to serve another three-year term as leader of the governing party until September 2018.

The LDP was supposed to increase the weight of votes casted by local chapters from the upcoming leadership race in a bid to demonstrate to the public that the ruling party attaches importance to its rank-and-file members as well as its regional organizations. However, the current trend within the LDP has given the public the impression that party members are trying to avoid heated debate because of a Cabinet reshuffle and appointments of party executives that will follow its presidential race. If so, it would be extremely introspective.

The LDP has recently tended to avoid active policy discussions. The party has failed to have heated debate on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Specially Designated Secrets, reinterpreting the war-renouncing Constitution to open the way for Japan to exercise the right to collective self-defense and the security bills now being deliberated in the House of Councillors, among other issues that are related to the nation's direction.

Key words

Liberal Democratic Party, Intraparty Faction, Party Line, Political Conservative Shift, Japanese Politics